

서울YWCA

2023. 9/10 vol.626



다 함께 즐겨봐요!

디지털 탄소발자국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말 그대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합니다.

충전할 때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느라 뜨거워진

데이터센터의 열기를 식히고 생각하는 데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즐겨봐요.

디지털 탄소발자국,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즐겨봐요

디지털 기기를 적게 사용할수록 당연히 탄소발자국은 줄어들겠죠



주기적으로 메일함 비우기

필요 없는 메일을 삭제하면 데이터를 보관하느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절전모드를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기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모드로 바꾸는 것은 국룰! 화면 밝기를 30% 낮추면 사용하는 에너지를 20% 줄일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 영상 시청하기

시청하는 내내 인터넷을 사용하는 스트리밍보다는 영상을 다운 받아요



새 스마트폰 구입 미루기

스마트폰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상상초월. 이미 산 스마트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2023년
9·10월호
626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9월 공동기도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계절의 속도는 가을로 향해 갑니다. 제철 과일들이 안으로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우리말은 열매를 갖고 거두는 행동과 연관되다지요. 우리 안에도 저마다 튼실한 신앙의 열매가 고운 빛깔로 무르익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찬란하게, 아멘.

10월 공동기도

참되신 하나님, 온통 거짓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교회마저 거짓의 소굴로 변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합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듣기는 어렵다지요. 돌을 던지기는 쉬워도 꽃을 건네기는 어렵다지요. 교회가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꽃을 건네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허물고 다시 짓겠습니다. 아멘.

〈서울YWCA〉 2023년 9·10월호 통권 제626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심주리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2 **즐거운 불편운동**
다 함께 즐겨봐요! 디지털 탄소발자국
- 4 **시대를 살리는 말씀**
100살이 되어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
- 6 **특집**
지구온난화 시대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
- 8 **현장 속으로**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성차별적 방송통신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 12 **살롱한 교회 생활**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4
평등한 언어편
- 14 **예술과 여성**
아르데코의 여왕이라 불린 타마라 드 렘피카
- 16 **서울Y 소식**
7·8월 뉴스
9·10월 행사안내
9·10월 캘린더
- 24 **회원증도 명단**
- 28 **알림터**
- 30 **후원 소식**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박순양, 서울Y 역대 사무총장

-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  www.facebook.com/seoulywca
-  검색창에 서울YWCA
-  blog.naver.com/ywcaseoul
-  검색창에 서울YWCA

100살이 되어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김형국 목사
하나님나라DNA네트워크 대표
정림건축 CPL(Cheif philosophy Leader)
정림건축문화재단 이사장
한빛누리 이사장

살아있는 유기체가 100년을 넘겨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식물 중에서는 간혹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지만 동물 중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확대되어서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조직이나 단체는 그 자체로 경이롭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 자랑스런 역사가 현재 조직의 생명력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건강한 조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그 소명을 심화시키는 조직

이 주제, 즉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건강해서 자신의 소명을 여전히 감당할 뿐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소명을 심화시키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선명한 존재 목적(사명), 조직 전체의 결정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중심가치), 함께 일하는 방식(조직 문화),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상황인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조직(살아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단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100년을 지속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그것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단체일 경우, 관성과 매너리즘이 생겨나서 과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새로운 상황에 필수적인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외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단체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갑니다. 반대로, 빛나는 유산이 오늘의 혁신에 자양분이 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의 초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지키려는 자세

그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순환계와 같은 것이어서 순환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유

YWCA는 하나의 머리에 여러 지체가 서로 연합하는 비전으로 100년을 넘게 살아냈습니다. YWCA가 “지속 가능한 조직의 패러다임”으로 YWCA가 200주년을 꿈꾸려면, 우리 자신이 속한 작은 팀 속에서 또한 연결된 팀과 어떻게 더 지혜롭게 소통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기체 전체의 건강은 약화되고 심할 경우에는 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경화와 경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 다시 말해서 경청하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경청은 나이의 장유와 경험의 유무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과 자신에 대한 겸손, 다르게 말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지키려는 자세가 개인과 조직 속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현장 조직 속에서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논의는 중간 조직에서의 검토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중앙부에 연결됩니다. 물론 각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논의와 주도적 결정이 가능할수록 그 조직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살아있는 조직이 됩니다. 모든 단위의 조직들은 자유로운 내부적 소통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성 있게 실행하며, 필요한 내용들은 상관성과 책임성이 있는 조직에 소통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중앙부에서는 이런 소통의 결과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체 조직과 적절하게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의 주체

이런 유연하고 살아있는 소통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명, 중심가치, 조직문화, 상황인식, 살아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그것들이 외형적으로 존재해도 조직 구성원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은 이와 다르고 거기에는 유기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유기적 조직이 희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YWCA와 같은 단체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머리에 여러 지체가 서로 연합하는 비전으로 100년을 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 다른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100주년을 기념한 YWCA가 “지속 가능한 조직의 패러다임”이 되는 150주년, 200주년을 꿈꾸려면, 우리 자신이 속한 작은 팀 속에서, 또한 연결된 팀과 어떻게 더 지혜롭게 소통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의 주체입니다! ♪

지구온난화 시대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



박일준
갑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객원교수

지구온난화와 대량멸종 시대, 이제 '인간'은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너무나 거대한 위기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어떤 해법이나 대안을 만들어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데에는 단지 인간의 행위주체성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주체성들도 함께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으로 불리며 비인간 '대상(對象)'으로 간주되던 행위자들을 이제 자신들만의 행위주체성을 지닌 객체(客體)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기후시스템은 생물도 유기체도 아닌 대기분자들의 작용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인간이 발휘하는 문명적 행위주체성에 반응하면서 작용한다. 세계는 인간 주체를 통해

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나 행위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작용하는 비인간 객체들의 힘과 더불어 구성되고 있으며, 이 비인간 존재들의 힘이 인류세 시대에 지구온난화와 생태위기로,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을 가리키는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생태계 내 모든 존재들은 더불어 존재

브루노 라투르는 「자연의 정치」(2004)에서, 우리가 생태적 종말을 향해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기후시스템이나 생태계 같은 초객체들과 비인간 존재들이 발휘하는 '객체들의 응답-능력'에 정치적으로 응답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정치적 응답-능력은 결코 인간의 정치적 권리나 인권 개념에 기반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들의 존재론적 엄밀함에 기반한다. 모든 존재는 모든 다른 존재들과 불가분하게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얽혀'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존재와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데 있다. 유발 하라리가 증언하듯,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의 '생물량'은 약 1억톤 정도인데 반해, 우리가 식용으로 사육하는 가축류의 생물량은 무려 7억톤 정도이다. 야생동물의 생물량이 1억톤 정도이니, 우리의 육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인간 존재들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이 육류 섭취를 위해 사육하는 소들의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단기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메탄가스 배출량의 37%가 소를 비롯한 가축류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른 존재들의 행위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작용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주체성이 결코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생태계 내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더불어 존재한다.

공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우월하기에 그들을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학대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렇게 다른 존재들과 함께 존재와 삶을 만들어 가면서, '응답-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공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공생(symbiosis 혹은 共生)'을 말하기보다 '함께-만들기(making-with, sympoiesis)'를 말한다.

우리 인간 존재는
사물, 자연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하며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인간 존재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인간 존재는
그들만의 힘을 발휘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어지는 자연재해는
자연이 보내는
정치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고유의 역량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자신의 행위역량을 '연장(extend)'하여 새로운 존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능력인 것 같다. 창세기 1:25-27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은 인간의 그러한 연장능력(extensibility)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그 자신과 다른 존재들로 창조의 역량을 연장하여 새로운 존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신 일, 그것은 '함께-만들어-나가는(sympoiesis)' 존재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창조성은 언제나 '함께-만드는(making-with)'의 역량이다.

책임감을 넘어 '정치적 응답-능력' 요구

우리는 어떤 존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곧 정치적 물음이며, 신학적 물음이기도 한다.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이제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응답-능력(political response-ability)을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이 '책임감' 개념으로부터 '응답-능력'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 응답-능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의 응답들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인가에 놓여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시대에 신학적 인간론은 정치 신학적 응답-능력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어떻게'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많은 토론과 생각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

박일준 교수는 보스턴 대학(S.T.M.)과 드류 대학(Ph.D.)에서 종교철학/철학적 신학을 공부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종교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등이 있다

“현장에서 오랜만이야. 사랑해 소중한 고마워”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증식

서울Y는 7월 8일 ‘2023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증식’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4년 만에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증식에는 8개의 Y-틴 동아리와 3개의 대학·청년YWCA 동아리, 청년지도자, 그리고 Y-틴 지도교사, 따뜻한나무장학회가 함께했다.



여는 예배 말씀을 전하는 한문덕 목사



인사말씀 하는 조연신 회장

2023 연합인증식은 양진화 평화운동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22년 청소년팀 활동 영상’이 그 시작을 알렸다. 석예림 Y-틴(이화미디어고) 회원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영상은 기존 활동 회원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는 예배에서 한문덕 목사(생명사랑교회 담임)는 창세기 41장 38-41절을 가지고 ‘비극에 물들지 않는 젊음과 준비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빠른 발달 등으로 불안을 넘어 위협마저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했다. “자기 자신을 깊게 탐구하고 자기 신념의 세계를 공고히 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며 ‘나’를 넘어선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정미 청소년팀 위원장(가운데)에게 임명장을 받은 고하은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과 신소혜 Y-틴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장학증서를 들고 있는 청(소)년 회원들 (왼쪽부터 김민승 소리모아 회장, 이채 평화아카데미 운영진, 임재은 온새미로 부회장)과 함께한 따뜻한나무장학회

서울Y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물론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활동을 해나갈 것을 권면했다. 축하공연이 연합인증식의 기운을 돋웠다. 아쉽게 교내 수련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영란여중 Y-틴의 위십 영상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학·청년YWCA 동아리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소리모아’는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YWCA 목적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Y-틴, 대학·청년YWCA 회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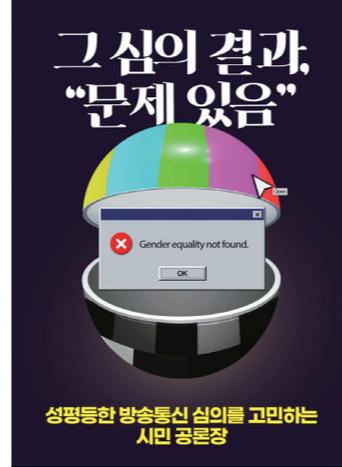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회원 선서를 모두가 함께했

다. 이후로 인증장, 임명장, 위촉장, 장학증서, 표창장 수여가 격려와 축하 속에 이어졌다. 특별히, 서울Y 해외 청년봉사단 활동을 인연으로 결성된 ‘따뜻한나무장학회’ 선배들이 참석해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따뜻한나무장학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Y 청소년,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합인증식은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며 응원과 격려를 나누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인증식을 계기로 Y-틴과 대학·청년YWCA 청년 회원들이 Y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서울Y와 함께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한다. Y 정리 문신환 청소년팀 간사



축하공연하는 대학·청년 동아리 ‘소리모아’와 영란여중 Y-틴

불편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성차별적 방송통신심의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성평등한 미디어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평소에도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를 접하고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그중에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도 상당하다. 서울Y 여성운동팀은 매달 성차별적 방송통신 사례를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는 ‘심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사례들은 방심위에서 ‘문제없음’ 혹은 ‘기각’ 처리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지난해 심의신청을 넣었던 총 349건의 사례 중 처분을 받은 건은 48건으로, 전체의 약 13%) 따라서 그 심의 결과가 ‘문제 있다’고 말하고, 성평등한 방송통신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8월 23일 서울Y 대강당에서 시민 공론장을 열었다.

1부에서 조혜원 서울Y 활동가는 성차별적 방송통신으로 심의신청을 넣어도 방심위에서 그저 “예능적인 요소일 뿐”, “칭찬이지 차별이 아니다.”, “특정 개인에게 한 말일 뿐, 전체에 대한 비하가 아니다.” 등 성차별을 성차별로 인정하지 않는 방심위의 젠더 감수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아 본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수아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는 방송통신심의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규정상의 미비함, 그리고 통신심의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 등을 설명하며 더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혐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심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인경 소장(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은 심의 규정 및 방송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토론 활성화, 과거 심의사례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인권 감수성에 맞춰 새롭게 심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합의, 사무처의 적극적인 안전 상정, 병합된 안전 상정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위 크 슝

발제 후 서울Y 심의신청 사례에 대한 방심위 답변과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심의 규정상의 미비함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해 보는 조별 토의시간을 가졌다.

●●● 성평등한 방송통신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 ▲ 출연자 및 제작진의 젠더 감수성 함양 ▲ 성차별적 언어를 대신할 성평등 용어에 대한 상상력
- ▲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이 아닌,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심의 ▲ ‘재미 요소’, ‘예능적 요소’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

●●● 방송통신심의 개선 방향

- ▲ 사후적인 조치를 넘어선 선제적 예방법 강구 ▲ 심의 규정의 내실화 및 근거 법령 제정 ▲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적극적인 수준의 차별 대응

●●● 기타 제안

- ▲ 여성 및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심의위원 인적 구성의 필요성 ▲ 성평등 규정의 올바른 적용 ▲ 병합된 안전 상정을 통한 문제 제기



“방심위 답변서에서 ‘선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예능이라는 특징’으로 성차별적 발언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웃는 것만을 생각하기보다,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예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통신심의(온라인 중심의 콘텐츠 심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제적 예방법을 강구하고, 안전한 소통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 공론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기 보고서 (QR 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피켓을 들고 방심위에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구호로써 함께 외쳐보았다.

“성차별적 방송통신에 성평등적 처분을!”

“젠더 감수성 있는 심의기구를 원한다!”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한 참여자분의 의견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서 관습화된 틀을 깨고, 새로운 대안과 상상력을 미디어 환경에 제시해 줄 필요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집단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 할 것이다. ♪ 정리 조혜원 여성운동팀 활동가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

살롱한 교회 생활이란 '성평등한 교회', '차별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Y는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을 제작했다. 교회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담았다.

평등한 언어편

우리 어제 학교에서 '새로운 말 만들기'를 했잖아.

응. 난 외가, 친가라는 말 말고 동네 이름으로 부르는 거 좋더라.

맞아. 외가는 바깥 외(外), 친가는 친할 친(親)이라니! 그런데 저~기, 저 자모실이라는 말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나는 아빠랑 있었거든.

어! 나도 아빠랑 있었는데! 하하! 근데 오늘 교회를 보니까 방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이름만 있더라. 이것도 너무 별로다. 그렇지?



- 자모실 혹은 모자예배실을 성평등 언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불평등 언어는 무엇이 있나요?
- 왜 성평등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 ①
평등한 설교편
- ②
평등한 사역편
- ③
평등한 교육편
- ④
평등한 언어편
- ⑤
평등한 관계편



성평등 언어를 위해 약속해요!

②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성평등 언어 운동의 일환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감성적이다, 섬세하다', 남자는 '강하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지',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지'와 같은 표현은 여자와 남자 모두를 억압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현숙한 여인이다', '기도의 어머니이다'라고 하거나 '잘 섬긴다', '순종적이다'라는 표현을 여성에 대한 칭찬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편견을 키우고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더해줍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① 성평등 언어 운동에 동참해요

사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일상 속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성평등한 단어로 바꾸는 '성평등 언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육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 · 안사람 · 바깥사람'은 '배우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집사, 여전도사, 여목사에서 '여'자를 빼주세요. 일상 속 언어의 변화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언어의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평등 언어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③ 외모 평가는 그만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칭찬도 평가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예쁘다', '날씬하다', '얼굴이 정말 작다', '피부가 하얗다' 등의 사회적 미의 기준에 따른 평가는 당사자에게 무례한 행동이며, 외모 강박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외모순으로 뽑았지', '예쁜 OO 청년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같은 말들이 교회 곳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사자를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멈춰주세요.

아르데코의 여왕이라 불린 타마라 드 렘피카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타데우스 렘피카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
타마라 드 렘피카
Tamara de Lempicka,
1898. 5. 16-1980. 3. 18

‘아르데코(Art Deco)’는 1925년 파리 ‘국제 장식미술 및 현대산업 박람회’에 이 성향의 작품들이 첫 출품되면서 유행되었다. 단순함, 깔끔한 형태, 유선형의 외양, 구상주의 형태에서 나온 기하학적이고 양식화된 장식, 검정과 회색, 녹색의 조합을 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타마라 렘피카는 이 박람회에 그림을 전시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그림으로 미술계에서 대표적 아르데코 작가로서 자리매김했다.

‘소프트 큐비즘’이라는 독특한 화풍

타마라 렘피카는 1896년, 당시 러시아제국 폴란드의회 소속 바르샤바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변호사였던 아버지와 폴란드계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집안은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와 루빈스타인과도 교분이 있는 사회문화적으로 엘리트 명문가였다. 1911년 렘피카의 부모는 그를 스위스 로잔의 기숙학교로 보냈지만 이내 싫

증을 느낀 그는 병을 가장하여 학교를 떠나, 대신 할머니와 함께 이태리로 여행을 간다. 그는 그곳에서 훗날 자신의 회화에 영감을 불어넣게 될 르네상스 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1912년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렘피카는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이모네로 가서 지내다 폴란드인 변호사 타데우스 렘피카(Tadeusz Lempicki, 1888-1951)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1916년 둘은 결혼한다.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남편이 한밤중에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스웨덴 영사의 도움으로 겨우 석방된다. 이 일로 타마라 가족들은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타마라의 본명은 타마라 로잘리아 구르빅-고르스카였으나 프랑스에서 남편의 이름을 본떠 타마라 드 렘피카로 개명하고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한다. 렘피카는 모리스 드니와 안드레 로테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르네상스의 견고한 형태와 입체파의 영향이 녹아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인체 표현에서 각진 선들과 둥근 곡선, 투명한 색채 등을 잘 조화시켜 소프트 큐비즘(부드러운 입체주의)이란 평가와 함께 뚜렷한 각도와 명암의 대비가 있는 전형적 아르데코 스타일의 그림을 선보이며 아르데코의 여왕이란 찬사를 받는다. 렘피카 스스로 “내 목표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 밝고 빛나는 색상을 만들어 내 모델의 우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새롭고 선명한 형태와 구성을 창조하려고 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에 발맞추어 변화되어 가는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이나 여성의 누드를 관능적이면서도 매혹적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이 바라보는 여성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했다.

진보적 현대적 여성상 표현

「나의 초상화(녹색 부가티를 탄 자화상)」은 녹색 부가티 스포츠카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있는 렘피카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다고 렘피카가 부가티를 소유했던 것은 아니다. 이 그림은 독일 잡지 ‘디 님메(Die Dame : 귀부인)’의 표지를 위해 의뢰받고 그린 것으로 사진작가 앙드레 케르테츠의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젊은 여성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색 스포츠카를 대담하게 잘라 화면 분할을 한 것과 감상자를 바라보는 렘피카의 뇌쇄적 눈빛이다. 갈색 가죽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꼭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운전하고 있는 렘피카의 얼굴과 자동차, 스카프에 명암대비와 굴곡진 스카프의 금속적 표현 등은 아르데코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녹색과 베이지색 톤의 단순한 색채 분할이지만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듯 강렬하다. 1929년 작품임에도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초상화(녹색 부가티를 탄 자화상)」, 1929.
나무판넬에 유채, 35X 27cm. 개인 소장

1960년대 말에 다시 조명받아

렘피카는 1928년부터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부유한 미술품 수집가이면서 사업가였던 라울 쿠프너 남작(1886-1961)의 후원을 받고 지내다 1931년 남편 렘피카와 이혼하고, 쿠프너가 본처와 1933년 사별하자 1934년에 그와 재혼한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렘피카-쿠프너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렘피카는 언론에서 ‘붓을 든 남작 부인’으로 불렸다. 그런데 1950년대에 미국의 미술계에는 추상미술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아르데코 미술은 잊혀지게 되고 렘피카 역시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러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그의 작업에 새로운 관심이 시작되면서 유명 연예인들과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타마라 렘피카는 남편 사후 1974년에 멕시코 쿠에르나바카로 이주해 딸 키제트의 돌봄을 받다 1980년 3월 18일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화장 후 유언대로 포포카테펫 화산에 뿌려졌다.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30주년



서울Y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관 30주년을 맞아 7월 14일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센터에서 열었다. 백향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의 인도로 드려진 기념예배에서 장운재 목사(서울Y 고문·이화여대 교목)는 요한복음 10장 14-15절을 가지고 '호명(呼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은 여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앞으로도 30년, 100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기를 축원했다. 조연신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원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고, 계속해서 서울Y는 노원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행사에 함께한 서울Y 이사·위원·실무자는 서울Y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모든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라는 사명을 당당히 이루어가기를 온 맘으로 응원했다.

법무법인 '정안'과 업무협약

서울Y는 8월 11일 법무법인 정안(대표변호사 정승택)과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대강당에서 가졌다. 정의롭고 따뜻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정의·평화·생명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정안은 서울Y 공익활동,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후 조직안정, 부속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통해 프로보노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영등포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8월 2일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장기요양기관 실무)을 개강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은 40일간 총 160시간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현장 실무 등 사회복지기관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이수 후에는 사회복지행정사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1:1 맞춤형 취업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

교육문화 어린이 모니터링

강남청소년수련관 소속 교육문화 어린이 모니터링단 '우주프렌즈' 청소년들이 7월 1일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부터 활동 기획, 실행까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추진한 이 프로그램은 지구 말랑이, 팝잇, 우산 만들기 총 3가지 체험부스로 운영됐다. 이번 활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니즈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더욱 흥미롭고 풍성한 하반기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누리봄

부캐양성프로젝트

누리봄 아이들이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캐양성 프로젝트-청소년보드게임리더십트레이너' 과정에 참여했다. 관악교육복지센터의 지원으로 아이어여문화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6명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활동이 자양분에 되어 누리봄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봉천

'쌍글빙글 사랑방' 개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1일 '쌍글빙글 사랑방-봉다방(봉천으로 다 모여방)' 개소식을 열었다. 봉다방은 1인 가구의 편안한 소통과 안락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물물교환 플랫폼 '스토리마켓', 개인별 욕구에 맞는 '소모임 활동',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 등 관악구 1인 가구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것 기대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제로 웨이스트 실천 붐 조성 사업

서울Y는 7월 5일 '로컬푸드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붐 조성 사업' 킥오프 회의를 회관 다목적실에서 열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10개 매장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계획을 나누고,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숍 '더피커' 송경호 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매장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동



시에 비품·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쿠킹클래스나 기부 활동, 소비자 대상 교육, 장바구니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치소비를 이끄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콩YWCA와의 만남

서울Y는 6월 27일 홍콩Y의 내방을 받았다. 홍콩Y 내 글로컬Y(Glocal Y)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Young Leader's Lead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22명의 청년이 서울Y를 방문했다. 오전에는 강남청소년수련관을 찾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명동 회관을 찾아 서울Y 임원단, 실무자와 만났다.



특강으로 한미미 이사(국제협력팀 부위원장·세계Y 부회장)가 이끄는 리더십 토크도 진행됐다.

서울Y와 홍콩Y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동적인 Y로,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기관은 더욱 적극 교류하고 자매애를 나누며, 선한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IOPE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NEW PDRN X CAFFEINE SHOT

강남 학교폭력예방 강사 역량강화교육

강남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강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연다.

- 일시 9월 14일(목)~15일(금) 10:00~17:00
- 장소 강남청소년수련관
- 내용 학교폭력의 전반적 이해, 유형, 실태, 동향, '활동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제 등
- 문의 02-3442-5167

누리봄 특별행사 'Blossom the 누리봄'

- 일정 10월 28일(토) 14:00
- 장소 삼모아트센터 라비니아홀
- 내용 악기 연주, 아동 연극 발표
- 문의 02-888-7983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9월 12일(화)	1만원
아기돌보미		10월 12일(목) 10:00	
세이프맘	63세 이하 여성		2만원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9월 6일(수) 10월 11일(수) 10:30	4만원
		9월 20일(수) 10월 26일(목) 10:00	5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전직 특화 무료교육

과정명	교육일정	문의
영·유아돌봄전문가 양성 (베이비시터 + 조리 + 정리수납)	9월 11일(월)~10월 17일(화) (월-금, 14:00~18:00)	노원 02-951-0187
아동돌봄전문가 양성 (베이비시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9월 13일(수)~10월 31일(화) (월-금, 14:00~18:00)	영등포 02-858-4514

노원 신규프로그램 안내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비
쇼핑몰 창업·e-비즈니스 전문가	9월 1일(금)~11월 24일(금) (월-금, 14:00~18:00)	10만원 (수료/취업 시 환급)
로스트마스터 + 커피지도사2급	10월 5일(목)~11월 7일(화) (일화목, 9:00~13:00)	내일배움 카드 지원율에 따라 상이
홈파티 케이터링	9월 8일(금)~10월 16일(월) (월, 14:00~17:00)	8만원 (재료비 10만원)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프로젝트'의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2023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2023년 10월 19일(목) 10:00-15:00
서울YWCA 회관



문의 02-3705-6005 www.seoulywca.or.kr

CALENDAR

2023 **9**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피스톡톡 정기모임(16일) 11:00 · 강남 청소년 Show 음악중심 12: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3:00
4 · 명예위원 모임 11:00	5 위원회 재정부 11:00	6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30 · 소리모아 정기모임 (매주 수) 18:00	7	8	9 월례회·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10: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요양보호사 13:00 · 그린Y 정기모임(23일) 11:00
11 · 역대이사 모임 11:00	1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이사회 10:00	13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4 · 강남 학교폭력예방강사 역량강화교육 10:00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강남 청소년 Book 플라마켓 11:00 · 싱크머니, 울력·온새미로 금융 멘토링 13:00
18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9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0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 10:00	2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22	23 · 은하수, Y-틴 멘토링 11: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 평화통일활동가 양성교육 13:3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28 · 누리봄 추석 홈커뮤니티(~30일)	29 추석	30

CALENDAR

2023 **10**

월	화	수	목	금	토
2	3 개천절	4 · 소리모아 정기모임 (11일) 18:00	5	6 위원회 재정부 11:00	7 · 피스톡톡 11: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3:00
9 한글날	10 이사회 10:00	11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30	1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13	14 · 신혼부부학교 10: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8일) 10:00 · 그린Y 정기모임(28일) 11:00 · 평화통일활동가 양성교육 13:30
16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 역대이사 모임 11:00	17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8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19 생명살림 바자회 10:00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20	21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월례회·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10: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요양보호사 13:00 · 봉천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11:00 · 싱크머니, 울력·온새미로 금융 멘토링 13: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23 위원회 봉천Y 11:00	24	25	26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 10:00	27 위원회 강남Y 11:00 · 강남청소년수련관 개관 30주년 기념예배 15:00	28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 누리봄 특별행사 'Blossom the 누리봄' 14:00 · 돌봄과살림회원 문화체험
30	31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서울YWCA 새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857명
16단체

기간 4월17일(월) - 7월23일(금)
접수 6,333점(목표 6,500점의 97.4%)
회비 189,990,000원(목표 195,000,000원의 97.4%)

단체상 1등 재정부 783점
2등 회원활동팀 371점
3등 홍보출판팀 302점

특별상 재정부 회원활동팀 홍보출판팀 누리봄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사업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팀 평생체육팀
(10개 부서)

정기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남이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미영	강민아	강선경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은영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강규연
계숙화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홍애	고희자	공명주	공민희	공우재
곽동윤	곽미숙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지혜	권태진	권혁준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옥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기호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두희
김라엘	김량순	김말녀	김명수	김명후	김문자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자	김순정	김승재	김승찬
김승현	김시은	김애숙	김애주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원경	김유성	김유진	김윤나	김윤종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석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종하	김주나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호	김지희	김지희	김진	김진서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김태경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승은
노인화	노정자	노혜환	당효성	동지현	류종철	류종현
류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영윤	박영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병주	박상건
박상수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정	박선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소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솔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인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한철	박현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효영	박희봉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영숙	백미리	백민주	백성원	백순녀
백옥선	백은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준	백지우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락원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예석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해원	서현옥	서현정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세은	송태인	송하윤	송혜수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찬용	신청희	신총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재원
심정남	심정자	심주리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운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안혜리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영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명화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아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왕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환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교회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철웅	윤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건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근범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동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소진	이수미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이수진	이수영	이수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시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연아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옥례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응열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이재욱	이재욱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종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채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향남
이행자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미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남	이희전	임경희	임광택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은
임성준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유경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혜리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순종	장영량	장예선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미덕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옥	전흥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해진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종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동일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송분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연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승화	채승화	채재호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영	최민호	최 봄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선미	최상현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유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영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지혜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허경희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시은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황지희	
(주)시공디자인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엔씨	콤마, 와인	파티인테리어	향기나무			

일시 후원

일반

강경자	강덕희	강미영	강민정	강선자	강수연	강시은
강영애	강유미	강훈덕	경규선	계정란	고순애	곽은숙
권순정	권유경	권진영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아
김경영	김경은	김광미	김귀임	김길성	김나래	김내영
김동연	김동형	김란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민경
김민자	김보미	김보현	김봉주	김선미	김선숙	김선애
김성순	김성일	김세경	김세연	김세진	김숙희	김순선
김아람	김연주	김영란	김영란	김영미	김영숙	김영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섭	김용애	김용희	김은순	김은주
김은태	김은희	김은희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재경
김재임	김 정	김 정	김정민	김정순	김정열	김정원
김정원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희	김정희	김준우
김진자	김춘화	김한나	김현정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화순	김희선	김희연	남윤정	남혜순	노용희	명옥순
목경자	문영미	문정숙	문혜원	민소정	박경순	박경옥
박경희	박금희	박미라	박미숙	박민숙	박새영	박선영
박성연	박아영	박영순	박영자	박영희	박은숙	박은실
박일지	박정숙	박정애	박정자	박정희	박준경	박지원
박진희	박채원	박춘화	박향애	박혜경	박혜숙	박혜영
박희규	박희연	박희진	방혁신	배윤주	백경원	백수영
백은열	백진희	변혜경	서혜원	석달수	성혜옥	손구슬
손금연	손영해	손영희	손옥연	송민경	송오엽	송원근
신창식	신필장	신현경	심미경	심정자	안명숙	안명옥
안영희	안미정	안미정	안복임	안상경	안선영	안지현
안진선	안현숙	양미진	양정자	엄원숙	오미영	오세은
오순아	오순정	오안심	오조묘	오혜선	오희영	원영경
유경숙	유명신	유미라	유민지	유병숙	유숙상	유윤주
유인숙	유혜진	유희숙	윤경임	윤동춘	윤상숙	윤상희
윤수진	윤애경	윤우경	윤유희	윤준남	윤지원	윤혜숙
음인아	이귀자	이금자	이금주	이금향	이나영	이래완
이매우	이미자	이민지	이민하	이선자	이선형	이세미
이수인	이수자	이수정	이숙미	이숙자	이순현	이순호
이순희	이슬기	이승진	이시전	이어진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채	이예림	이우자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인란	이인혜	이재호	이정란	이정미
이정미	이정복	이정숙	이정현	이종남	이주자	이주희
이지연	이지은	이지은	이창숙	이추성	이춘열	이푸음
이현정	이현주	이형란	이혜숙	이혜슬	이혜준	이화재
이화진	임신숙	임진남	임현정	임혜준	장숙자	장연순
장영원	장영자	장영주	장은수	장은숙	장점순	장지수

전미경	전보연	전성자	전 숙	전유진	전현숙	정기영
정모아	정문옥	정보경	정선영	정선자	정선희	정순남
정안순	정영란	정영희	정옥재	정용희	정태원	제금자
조귀선	조근엽	조명숙	조봉례	조아영	조영관	조영이
조우현	조한솔	조현진	주리애	주미향	주형애	진은정
진효정	차경숙	차경웅	차은미	차정미	차정민	천귀매
천영실	최경아	최경옥	최규선	최금례	최민영	최성심
최연수	최유주	최은경	최인숙	최정순	최정애	최정현
최정희	최정희	최준자	최준자	최지현	최진화	최혜실
최희경	최희연	하민정	하성자	하유정	한상조	한영숙
한영희	한정숙	한지연	한지연	한지연	한지영	한혜경
허미숙	홍경희	홍서윤	홍순선	홍양자	홍은자	황금숙
황영자	황병렬	황소영	황울겸	황현숙		

Y-틴

강다연	강민채	강예송	강은영	강태건	고다현	고도희
권서영	권서윤	권에서	권은지	권진영	김서영	김서영
김소민	김소원	김소은	김수지	김시아	김아진	김연진
김예담	김예빈	김예소	김예음	김유미	김지우	김지윤
김진우	김태은	김태희	김하경	김하람	김하빈	김혜원
김휴정	남유경	노하은	문가인	문시연	민세영	박경린
박서현	박소연	박수진	박시은	박시원	박원진	박지민
박지민	박지원	백윤지	서지혜	서채현	석예림	석지원
설은우	손민재	송민정	송민지	송은서	신소혜	신윤지
신하은	양채림	엄효준	유은주	윤서영	윤이진	윤지민
윤하은	이고을	이다인	이모원	이미현	이민정	이민주
이민진	이세은	이소은	이수빈	이수빈	이시은	이아린
이예린	이예린	이유진	이윤비	이윤서	이은휘	이정민
이정석	이지윤	이지효	이채림	이채원	이태영	이혜원
이혜인	임소이	임승준	임재은	임태준	임하은	장연우
장윤지	전나경	전민준	정채영	조세민	조하은	주예나
주은하	지하은	지효리	진주연	차성은	최시우	최은서
최정원	한효민	허나경	홍시우	홍지안	황리이	황예림
황지윤						

대학생

강해솔	견경재	고영건	김도경	김도윤	김민서	김민소
김민승	김민재	김민주	김상근	김성영	김소현	김영준
김은경	김진재	김창수	김태연	김태윤	김혜원	마효리
박민서	박영진	박주연	박지은	배병화	서예은	서종학
우홍재	유예림	윤소이	이가람	이가현	이선주	이송학
이예원	이지현	이 채	이하은	이해지	장서희	전우현
전채윤	정민우	정승혁	정원석	정유성	정유채	진선윤

차민우	최아영	최정빈	최태하	허예진	홍채린	홍혜진
황경민						

어린이

김지선	민세영	염하진
-----	-----	-----

유지

이경재

일시후원

Justin Kang	강민아	김순임	김양선	김철규	나순복
민혜경	박해리	석정서	심혜영	여현주	우성도
이명혜	이은령	이희전	전선덕	조종남	주미령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오세연				

평생

김순임	김우택	문동호	방해자	백찬주	이순옥	정이안
조규영	조선희	한 정	한정숙			

회우

고대연	권혁우	김재민	김종진	김지호	김지환	김태원
김한민	김형철	박주원	박희균	변승민	서동욱	서준교
서충석	신동원	신완철	안성준	안창락	엄용재	엄병윤
염 정	윤현중	유제천	이 립	이종철	이충환	장경익
장승혁	조영리	최대성	최성진	최홍규		

기업·단체

(주)선한	(주)한배엔지니어링	H.I.콘트롤
굿데이서비스	더세븐파트너스	반석
산들축산·최경배	삼우상회(김해관)	수원스퀘어AK수원점
쇼헤어샵(황미화대표)	심파팍 주식회사	엄마손크린
에이스스퀘어경기광주	월드유니텍 주식회사	현대공조 노상윤
후마니타스아카데미		

※ 명단에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705-6008



회원 소식

김순임 여성참여위원회 부위원장
4월 28일(금) 부친상

하진욱 여성참여위원회 위원
5월 24일(수) 모친상

차지현 청소년위원회 위원
7월 10일(월)
제24회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서양화부문 동상 수상
7월 5일(수)-10일(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수상작 전시

김계월 명예위원
7월 7일(금) 소천

박미용 재무회계팀 부장
8월 27일(일) 모친상

평생 회원



김(이)순옥
김진덕정경식재단
재무이사장



김순임
서울YWCA 이사



김우택
NEW 회장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방혜자



정이안
차귀숙 증경회장 손주



조규영



조선희
한국여교역자연합선교회
증경회장



한정숙

문동호
백찬주
한 정

추천 영화



영화 <프리 철수 리>

감독 줄리 하·유진 이 장르 다큐멘터리·범죄(86분) 제작국 대한민국·미국

탕! 탕! 탕!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갱단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5일 후,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이름 '철수 리'. 범인으로 몰려 10년의 재판을 받았던 21살의 한인 사형수 '이철수'와 그를 구명하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이들의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YWCA를 비롯해 1970-80년대 미국과 한국에서 '이철수 구명운동'을 함께했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저널리스트 출신의 두 재미교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 이민사 중 가장 센세이셔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알려진 적 없는 사건을 치밀한 아카이빙과 감각적인 연출로 완성, 선댄스영화제를 비롯한 다수 영화제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재판,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철수 리 나머지 삶의 반전. 안타까움을 남기는 충격적 결말 속 그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의 청년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은 물음을 던진다.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감사합니다

2023년 6월-2023년 7월

특별 후원



-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증식
경규연 김진숙 조연신 청소년위원회
- Y-틴 전국회원대회 활동지원
청소년위원회

일반 후원



- | | | | | | | |
|-----|-----|-----|-----|------|-----|-----|
| 강명희 | 강서현 | 고려옥 | 고선혜 | 곽민규 | 구영숙 | 권혜진 |
| 김미자 | 김병호 | 김선자 | 김소희 | 김숙희 | 김윤희 | 김인복 |
| 김정순 | 김해정 | 김현경 | 김 형 | 민혜경 | 박대화 | 박숙자 |
| 박위자 | 박정희 | 박제희 | 박진선 | 박혜리 | 배은경 | 배정미 |
| 서혜영 | 석성욱 | 송순옥 | 심영자 | 양수경 | 양진화 | 염현경 |
| 오준호 | 우정현 | 우주훈 | 우희희 | 월요까페 | 유광주 | 육순연 |
| 윤혜선 | 이애진 | 이옥희 | 이유리 | 이유림 | 이윤선 | 이은숙 |
| 이재림 | 이종미 | 이행자 | 이홍자 | 임중현 | 장민경 | 장수자 |
| 정문옥 | 정석용 | 정수경 | 정승원 | 정은숙 | 조성환 | 조순영 |
| 조연신 | 조종남 | 지복임 | 채서은 | 채재호 | 최경자 | 최 봄 |
| 최혜란 | 하태진 | 한정신 | 홍근표 | | | |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복멘토링 후원



- | | | | | | |
|-----|-----|----------|-----|-----|-----|
| 구영숙 | 김민아 | 김상희(김한나) | 김선자 | 김성연 | 김정숙 |
| 김지영 | 김진숙 | 김혜경 | 남은희 | 박나영 | 박소현 |
| 박용천 | 박진선 | 박채원 | 배은경 | 손예림 | 손지용 |
| 송태언 | 신여명 | 신정숙 | 심영자 | 양진화 | 염현경 |
| 예정원 | 우영숙 | 월요까페 | 유지현 | 이연배 | 이옥희 |
| 이윤선 | 이재림 | 이푸른하 | 이현미 | 이희정 | 임재연 |
| 정나미 | 정모아 | 조민형 | 최동수 | 최 봄 | 최정우 |
| 최한나 | 최혜영 | 한혜영 | | | |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3년 7·8월 회보 '영화와 삶' 칼럼 기고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김벌리 X YWCA 사단법인 서울YWCA

2023 신혼부부학교

부부, 서로의 마음숲을 가꾸다

2023/10/14(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서울YWCA 5층 대강당



신혼부부학교 특강
10월 14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행복해지는 부부관계 탐구
네가 없이는 '나' 역시 없다

36기

결혼·육아 선배와의 만남
10월 14일(토)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가수별
토크 콘서트
별이 빛나는 신혼'

37기

신청 기간
~9월 30(토)

신청 대상
예비부부,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40커플
36기 70커플 / 37기 70커플
36, 37기 중복 신청 가능

참가예약금
5만원(커플당)
행사 완료 후 참가 부부에
한해 전액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1

서울YWCA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방법02

신혼부부학교
블로그

NAVER 블로그



선정 발표
서울YWCA 홈페이지
신혼부부학교 블로그
선정 후, 참가자에게는
개별 문자드립니다

참가 부부에게 행사티셔츠와
유한김벌리 제품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행복상자를 선물로!

문의 서울YWCA 02-3705-6034

C.A. 클럽활동
오후 12시 50분~
오후 1시 30분 / 자유선택(택 1)

01 부부 서로의 마음 알기
심리검사를 활용한
그룹상담

02 모두의 살림
우리 집 옷장 정리
노하우



박순양

서울Y 역대 사무총장
(1926-2010)



저소득 근로여성들을 위한 숙소 '서울YWCA 소녀의집'에서
사생들과 함께한 박순양 선생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난 박순양 선생은
정신여자고등학교를 나와 1950년 이화여대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그해 10월 한국YWCA연합회에 부임해
대학생부, 프로그램부, 지도자양성부 간사로 일했다.

1953년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대학과
하와이대학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오하이오주 YWCA 직원양성학교에서 수학했다.

1959년 5월 서울YWCA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1960년대 다양한 활동을 이끌며 본회의 성장을 도왔다.
1969년부터는 22년 동안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여성 지도력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회원 YWCA 조직을 40여 개로 확장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힘썼다.
이후 국무총리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청소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약했으며
1983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박순양 선생은 독립유공자인 박종수 선생의 장손녀이며
한국YWCA 기반을 세운 박에스터 전 한국Y 고문총무의 조카이기도 하다.